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에 표현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

하 승 연 · 이 연 희⁺

국립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전임강사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Design Expressed in Issey Miyake's Fashion

Seung Yeon Ha · Yun Hee Lee⁺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투고일: 2011. 9. 8, 심사(수정)일: 2012. 3. 19, 게재확정일: 2012. 3. 21)

ABSTRACT

Interest in the environment is rising in all the sectors of industry and culture. Even in the fashion industry, fashion designers have recently begun delivering messages on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Issey Miyake* has been constant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and has been deemed as a designer who values practicality and universality in clothing. This study seeks to examine Issey Miyake's fashion from the perspective of an eco-friendly design. This research analyzed collections of *Issey Miyake* from 1980 to 2010 through photo works and www.firstview.com. The research method was to study 8 people who have professionalism in fashion design and have analyzed 201 works of *Issey Miyake* from 1980s to 2000s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design.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design in Issey Miyake's fashion : naturality, simplicity, sustainability and transformability. First, *Issey Miyake* preferred natural materials and used Japan traditional dyeing that integrated modern techniques for naturality. Second, he expressed simplicity in his fashion by applying the least cutting and sewing in geometric panels. Third, he pursued sustainability with comfortable clothing that anyone could wear regardless of trend, age and body shape. Finally, he developed the A-POC system that eliminated the usual needs for cutting and sewing and tried transformability on clothing using buttons, strings, belts, zippers, and layered styling.

Key words: eco-friendly design(친환경 디자인), Issey Miyake(이세이 미야케), naturality(자연성), simplicity(단순성), sustainability(지속성), transformability(다변성)

I. 서론

오늘날은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자인 분야에서도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과 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시대적 정신 속에서 등장한 친환경적 디자인 방법론은 그린디자인(green design), 에코디자인(eco design),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sustainable slow design)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 개념과 내용이 발전되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well-being) 트렌드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적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새로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에코디자인의 방향을 현대생활에 맞게 새롭게 변화시키며 각 디자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디자이너들의 책임 영역이 옷의 기능적이고 형태적인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환경문제와 관련된 컨셉과 개발과정으로서의 디자인 프로세스까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은 격식보다 기능성과 편안함을 중요시하면서, 친환경이라는 이슈가 패션의 주요 테마로 대두되었다. 2008년 어패럴뉴스¹⁾에 따르면, 최근에는 각 나라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뉴욕의 Imitation of Christ라는 브랜드는 리폼(reform)한 의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뉴욕의 베흐시장이나 중고의상 부티크에서 찾아낸 옷들이 그들의 소재이자 원단이다. 이들은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중고 의류를 이용하여 뉴욕 컬렉션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다. 2007년 삼성디자인넷²⁾에 의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면 소재의 가방을 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의 에코백(eco-bag)은 현대 패션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에코백은 영국 디자이너 Anya Hindmarch가 '나는 비닐봉지가 아닙니다.(I'm not a plastic bag.)'라는 문구를 천 가방에 새겨 영국과 일본 등지에서 한정 판

매한 데서 시작되었다.

특히 Issey Miyake는 일본 전통복식을 국제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는 동시에 끊임없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Issey Miyake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친환경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간과한 채, 그저 그의 작품에 나타난 예술성이나 조형성에 치우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례로, 박명희³⁾의 연구에서는 Issey Miyake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김미성, 배수정⁴⁾의 연구에서는 Issey Miyake의 패션철학을 중심으로 그의 디자인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윤지영⁵⁾의 연구에서는 Issey Miyake의 작품에 나타난 상징성을 통해 그의 예술의지를 해석하였으며, 조정미, 허은주⁶⁾의 연구에서는 상업화를 위한 전개과정의 관점에서 Issey Miyake의 디자인적 발상을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 Issey Miyake의 패션철학과 조형성에 국한된 연구로부터 확대하여, 친환경 디자인의 관점에서 그의 패션에 나타난 친환경적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친환경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과 Issey Miyake의 패션에 대해 정리하였고, 이러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Issey Miyake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Issey Miyake 작품이다. 연구자료는 Issey Miyake의 작품집과 패션컬렉션 사이트인 www.firstview.com을 이용하여 Issey Miyake의 작품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작품집을 통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의 작품을 수집하였으며, 패션컬렉션 사이트를 통해서 1996년 S/S 시즌부터 2010년 F/W 시즌까지의 작품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패션디자인 전공 박사학위자와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구성된 패션전문가 집단 8인이 중복되는 디자인을 제외한 478점의 작품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201점의 연구자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범위를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광범위하게 선정한 이유는 1980

년대와 1990년대는 Miyake가 소재개발과 의복제작 과정을 통한 실험적인 디자인 발표를 왕성하게 한 시기로서, 그의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과 의도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Miyake의 은퇴 이후인 2000년대의 작품은 그의 패션철학과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 후계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재의 패션으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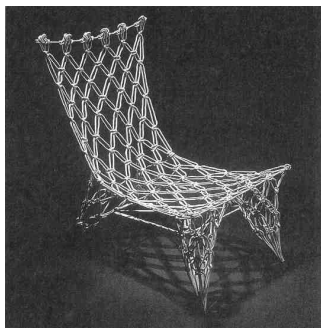
1. 친환경 디자인

현대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생태학적 문제가 인류생존의 당면과제로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환경은 디자인의 주된 주제가 되었다. 시대에 따라 환경의 개념이 다르게 해석되었는데, 하승연⁷⁾에 따르면, 친환경의 시작은 인간성 회복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강조했던 1960년대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하였다. 1970년대 초의 에너지 위기 이후, 그린(green) 공정에 의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개념이 등장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그린디자인은 1980년대에 들어서, 생태학적 문제가 인류생존의 당면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켰고, 1990년대의 환경친화(environment-friendly)와 에코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다. 21세기 이후에는 디자인의 윤리적 책임과 함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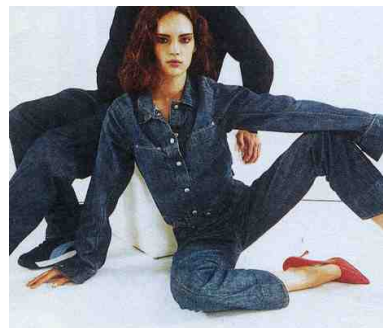
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절제된 상태의 개발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웰빙 트렌드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주의와 만나면서 인간친화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웰빙의 개인적 관심이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로하스의 개념이 나타났다. 이렇듯 다양한 용어로 발전해 온 친환경 디자인의 개념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자연성, 단순성, 지속성, 다변성이라는 디자인 특성이었다.

1) 자연성

본격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김희연⁸⁾에 따르면, 1960년대 히피(hippie)문화의 특성인 '자연으로의 회귀'는 디자인에서도 환경을 염두에 두는 경향을 띠게 되었고, 이러한 전원 풍에 대한 동경은 소박한 자연감을 표현하는 양식으로서 작은 꽃문양의 직물, 부드러운 색조, 자수, 레이스, 손뜨개, 패치워크 등의 디테일로 나타났다. 이렇듯 환경을 중시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주의 경향은 천연소재의 선호와 함께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테크놀로지에 의한 자연 소재의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친환경 디자인은 수공예를 통한 자연의 재해석, 그리고 자연적인 형태와 질감의 소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자연친화적인 특성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림



<그림 1> 드룩 디자인의 매듭의자
- 열 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 p. 59.



<그림 2> 리바이스의 텐셀 청바지
- The eco-design handbook, p. 126.

1)⁹⁾은 Droog design의 Marcel Wanders가 1996년에 디자인한 매듭의자이다. 이 매듭의자는 아라미드 섬유에 전통적인 바늘짜기 방식을 적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수공예적인 전통과 첨단 기술의 접목이 낡은 산물이다. <그림 2>¹⁰⁾는 미국 Levi's사의 텐셀(tencel)을 이용한 Engineered Jeans이다. 면섬유는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천연소재이지만, 실제로는 섬유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살충제와 유독물질로 인하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Levi's사는 천연 목재펄프가 원료로 사용되는 재생섬유인 텐셀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청바지 라인을 발표하였다. 오늘날 친환경적인 디자인 특성으로서의 자연성이란 자연과의 동화, 자연 존중과 자연 본질에 대한 표현이며, 이는 점차 테크놀로지와 결합되고 있다.

2) 단순성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McDonough, Braungart¹¹⁾에 따르면, 이 시대의 디자이너들은 자연스럽게 천연자원과 화석연료에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그린 디자인의 개념이 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과정을 고려하는 그린 공정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Mackenzie¹²⁾는 그린디자인의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성으로서 재료의 최소화, 재활용 재료, 오래가는 재료, 한정된 자원에 대한 고려, 마감처리

등을 제안하였다. <그림 3>¹³⁾은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 Think City이다. 이 자동차는 수 천개의 부속품이 들어가는 기존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425개의 부속품이 사용되며, 조립과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4>¹⁴⁾는 1930년대 말 스칸디나비아 전통방식을 따라 한 장의 합판을 구부리고 잘라 만들어진 의자로서, 재료와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였고 단순성, 경제성,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좋은 디자인 사례이다. 이 디자인은 의자가 포개어짐에 따라 확보되는 공간에 대한 효율성도 고려하였다. 이렇듯 친환경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디자인 특성인 단순성은 한정된 자원에 대한 고려이며, 재료와 에너지를 최소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 절약을 추구한다.

3) 지속성

1980년대는 에콜로지와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공동 운명체의 지구촌'이라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반인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드디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절제한 생산과 소비를 초래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McDonough, Braungart¹⁵⁾는 어떤 물건이 사용된 후에 단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고 또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거론하였다. 21세기는 이러한 지속가능의 개념이 환경과 문화,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연희 외¹⁶⁾의 연구에 따



<그림 3> 노르웨이의 전기자동차
- 북유럽 디자인경역, p. 79.



<그림 4> 스웨덴의 포개지는 의자
- The eco-design handbook, p. 40.



〈그림 5〉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자
- *The eco-design handbook*, p. 29.



〈그림 6〉 일상용품이 재사용된 소파
- *The eco-design handbook*, p. 21.

르면 지속성이란 무조건 빠른 것 보다는 '느림'을 선택하는 것이며, 느림이란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는 스타일로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재활용 재료와 오래가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5〉¹⁷⁾는 노르웨이의 Stokke사의 Tripp Trapp 의자이다. 이 의자는 6개월 된 아기부터 10대 혹은 어른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어서, 하나의 의자로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의자에 사용된 나무의 구성요소는 최소한 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으며, 안전레일과 쿠션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될 수 있다. 〈그림 6〉¹⁸⁾은 Studio Campana가 제작한 Sushi sofa로서, 일상생활의 카펫, 펠트, 고무, 면 조각과 플라스틱 등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생명력을 부여한 디자인이다. 친환경적 디자인의 특성 중 지속성은 디자인의 전 과정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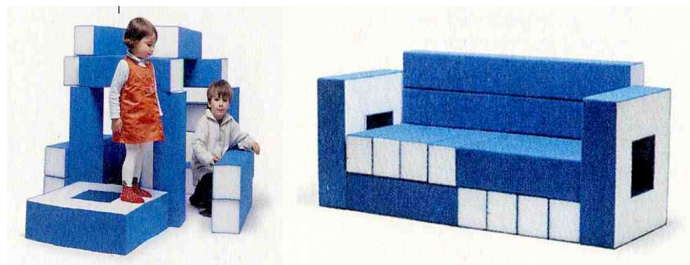
적 사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지속성을 나타낸다.

4) 다변성

친환경적 디자인의 또 다른 특성으로서, 디자인의 용도 및 형태 변형을 들 수 있다. 나영원¹⁹⁾의 연구에 따르면, 다변성이란 외적 형태 또는 내적 특성을 변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외형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외형적 측면에서의 다변성이란 사물의 목적 변화와 함께 형태, 재질, 색채 등의 외형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가변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의 다변성이란 다목적, 다기능, 다용도, 겸용 등을 포함한다. 즉 친환경 디자인에서의 다변성이란 하나의 디자인이 형태적 변형을 이룸으로써 여러 가지 용도와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다변성은 하나의 제품이 여러 가지 용도로 변형됨으



〈그림 7〉 변형이 가능한 가방
- *The eco-design handbook*, p. 153.



〈그림 8〉 변형이 가능한 소파
- *The eco-design handbook*, p. 190.



로써 자원절약 뿐 아니라 폐기물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 다변성이란 환경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법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림 7>²⁰⁾은 자전거 통근자를 위해 개발된 가방이다. 이 가방은 자전거를 탈 때, 가방 안의 물건들이 마구 뒤섞여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큰 배낭으로 보이는 이 가방은 자전거 안장에 다는 가방(saddle bag)과 소형배낭(daypack)으로 그 디자인과 기능이 분리된다. <그림 8>²¹⁾은 프랑스의 Domeau & Peres사가 디자인한 아이들용 소파이다. 이 그래픽적인 소파는 아이들의 상상력에 따라 성, 굴, 오두막,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의 미니 건축물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친환경의 개념을 통해 나타나는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

Issey Miyake는 1938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도쿄에 있는 Tama Art University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였다. Polan, Tredre²²⁾에 의하면, Miyake는 1962년에 옷을 만들기 시작하여, 1963년에 도쿄에서 첫 컬렉션을 시작하였다. Miyake는 1965년에 파리로 건너가서 Guy Laroche와 Givenchy의 Hubert를 위해 일했으며, 4년 후 뉴욕에서는 Geoffrey Beene의 컬렉션과 협력하였다. 그는 1970년에 일본으로 돌아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였다. 그의 스튜디오는 일상생활을 위한 아름다운 물건을 창조하고자 했던 바우하우스 운동과 같이 예술과 패션 그리고 디자인을 통합하는 실험의 발판대 역할을 하였다. Jones, Rushton²³⁾에 의하면, Miyake는 1993년 Pleats Please 라인을 시작할 때, 1982년 Miyake design studio에 입사한 Naoki

<표 1>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

친환경디자인	특 성	사 례
자연성	환경친화적 자연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소재 선호 • 인간본성에 바탕을 둔 테크놀로지에 의한 자연소재 개발 	
단순성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린공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최소화 •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효율화 	
지속성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성을 중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는 스타일로 제품의 수명연장 • 오래가는 재료나 재활용재료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 	
다변성	디자인의 용도 및 형태 변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디자인으로 여러가지 용도, 기능, 스타일을 충족 • 자원절약 및 폐기물의 감소효과 	

Takizawa에게 남성복을 맡겼다. 또한 Jones, Rushton²⁴⁾에 따르면, Miyake는 1999년에 Naoki Takizawa에게 Pleats Please 라인인 여성복마저 넘겨주면서, Dai Fujiwara와 함께 옷의 새로운 구성방법인 A-POC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는 2000년에 은퇴하였다. 현재 Miyake 컬렉션을 이끌고 있는 후계자는 Dai Fujiwara로서, 타마에술대학교 디자인학부 섬유과를 졸업하고 1994년 Miyake 디자인 스튜디오에 입사하였으며, 2007년에 Naoki Takizawa의 뒤를 이어 현재의 Miyake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취임하였다.

Issey Miyake는 자연의 색상과 천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과 자연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보편성을 지닌 의복을 추구하였다. 한경미²⁵⁾의 연구에 따르면, Miyake의 패션은 면, 마, 울, 실크 등의 자연소재와 거칠고 나뭇결 같은 재질, 자연을 생각나게 하는 토착적 소재를 통해 자연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Miyake는 일본 전통 염색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전통적 기술과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둔 현대적인 자연소재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Miyake는 옷이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었다. Polan, Tredre²⁶⁾에 의하면, Miyake는 진(jeans)이나 티셔츠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입혀질 수 있는 옷을 만들기를 원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옷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탁하고, 어떻게 스타일을 코디하며,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민하였다. 그는 항상 형태와 기능 간의 조화를 연구하였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폴리에스터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기계세탁이 가능하며,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한, 비싸지 않은 주름 소재를 만들어냈다. 이 소재는 디자인에 따라 수직, 수평, 대각선, 마주보거나 직선 또는 구불거리는 등 주름의 형태와 방향이 다양하였다. 1989년 S/S 시즌의 컬렉션부터 Miyake는 다양한 형태의 주름 라인을 발표함으로써 인체와 옷의 관계에 대한 끝없

는 탐구를 보여주었다. 드디어 Miyake는 5년 여의 연구 끝에 1993년 Pleats Please를 상업화하는데 성공하였다. Golbin²⁷⁾에 따르면, 이 주름 시리즈는 시간이 지나도 주름의 형태가 유지되고 세탁이 가능하며 닳거나 지퍼가 없이 디자인되었으며, 서로 겹쳐 입을 수 있도록 착장이 가능한 구성으로 튜닉, 조끼, 원피스, 바지 등의 14개의 라인으로 시작되었다. 김미성, 배수정²⁸⁾의 연구에 따르면, Miyake는 이러한 주름의상을 캐주얼에서부터 우아한 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옷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주름의상의 더욱 큰 장점은 어떤 체형의 사람도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Miyake²⁹⁾에 의하면, 그는 형태의 단순성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최소화된 옷의 형태는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실루엣의 곡선을 고려하지 않고 인체에 입혀지는 기하학적 형태의 직선 재단을 사용하였다. Holborn³⁰⁾에 따르면, 그의 의복은 일본의 전통적인 의복인 기모노의 형태와 미래적인 외관 및 착용감을 결합시킴으로써 단순하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내포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경미³¹⁾의 연구에 따르면, Miyake는 2차원적이고 편평한 직물을 인체에 입힐 때에 3차원적인 조각 형태로 변형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a piece of cloth'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었다. Miyake는 직선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며, 한 조각의 장방형 천으로 구성된 디자인을 활용하기를 즐겼다. A piece of cloth의 개념은 그의 패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의 이러한 의도는 진화를 계속하여 1998년 S/S 시즌에는 Just Before 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후, 2000년 S/S 시즌에는 A-POC으로 발표되었다. Miyake, Fujiwara³²⁾에 의하면, A-POC은 옷을 만드는 복잡한 제조과정을 원자재로부터 착용자가 착장하기까지 기계를 활용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재고한 방법이며, 이 시스템에 의해 옷은 과학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A-POC은 기계안으로 원자재를 넣고 완제품을 꺼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튜브 상태의 원단에 컴퓨터

터 제어에 의한 패턴이 표시되어 있음으로써, 그 표시를 따라 착용자가 원하는 대로 가위로 잘라내면 드레스, 셔츠, 팬츠, 스커트, 모자, 가방 등이 완성되는 재단방식이다. A-POC은 옷을 만들기 위한 일상적인 과정인 원단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최신 컴퓨터 기술에 의해 실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완성된 옷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공헌하고자 했던 Miyake의 열망으로부터 기인하였으며, 이러한 A-POC의 과정은 재료와 노동력을 줄일 뿐 아니라 재활용한 실을 사용함으로써 리사이클(recycle)의 의미도 내포하였다. Miyake는 상상력과 호기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예술과 기술이 통합된 바우하우스의 계승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불가분하다고 역설하였다. 즉 A-POC은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면서도, 친환경적이었다. 한편 조정미, 허은주³³⁾의 연구에 따르면, Miyake는 익명의 디자인(anonymous design)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개성을 요구하는 현대패션에서 혁신적인 디자인 발상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대량생산의 획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설명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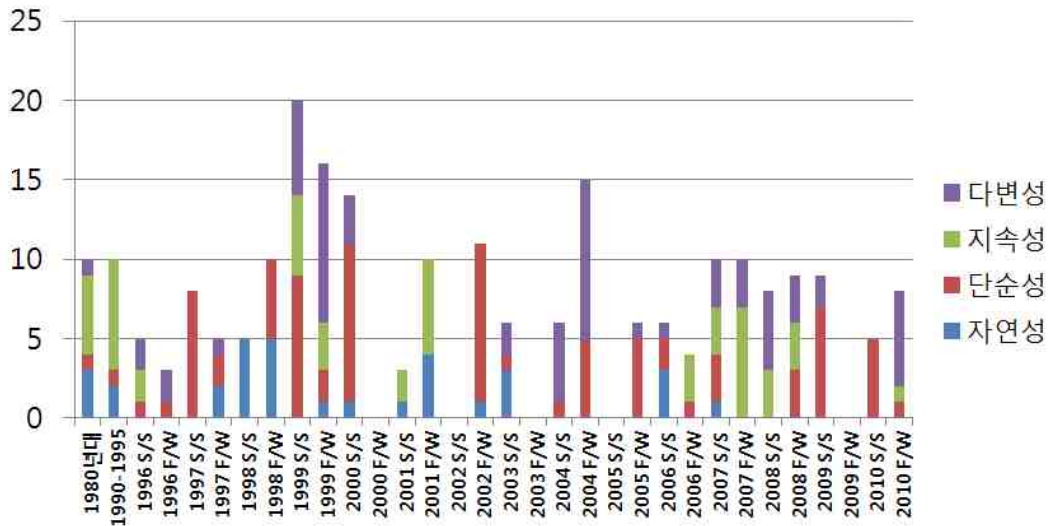
패션디자인 전공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과정 재학

생으로 구성된 8인의 패션전문가 집단이 Miyake의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작품 총 478점을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성, 단순성, 지속성, 다변성의 특성이 발견된 작품은 최종적으로 201점이었다. 이 기간 중 유일하게 2000년 F/W 시즌 컬렉션 자료는 구할 수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에 대한 중복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8인의 패션전문가 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채택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Miyake 패션에 살펴본 결과, 연구 결과에 사용된 최종 자료수와 친환경적 디자인의 특성이 발견된 작품의 수는 <표 2>와 같았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Miyake패션에 나타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면 <그림 9>와 같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Miyake의 컬렉션에서 자연성, 단순성, 지속성, 다변성이라는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던 시기는 1999년 S/S 시즌(20점)과 1999년 F/W 시즌(16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2004년 F/W 시즌(15점), 2000년 S/S 시즌(14점), 2002년 F/W 시즌(11점)에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 많이 보여졌다. 대체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Miyake의 작품에서 2000년 F/W, 2002년 S/S, 2003년 F/W, 2005년 S/S, 2009년 F/W 시즌을 제외하고는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 5-10점 내외로 꾸준히 보여졌다.

<표 2> Issey Miyake의 패션에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 나타난 자료

연도	1980년대	1991-1995	1996 S/S	1996 F/W	1997 S/S	1997 F/W	1998 S/S	1998 F/W
수집자료 (친환경 디자인특성)	19점 (10점)	16점 (10점)	18점 (5점)	12점 (3점)	12점 (8점)	8점 (5점)	11점 (5점)	17점 (10점)
연도	1999 S/S	1999 F/W	2000 S/S	2000 F/W	2001 S/S	2001 F/W	2002 S/S	2002 F/W
수집자료 (친환경 디자인특성)	17점 (10점)	16점 (14점)	14점 (10점)	-	9점 (3점)	18점 (10점)	16점 (0점)	17점 (10점)
연도	2003 S/S	2003 F/W	2004 S/S	2004 F/W	2005 S/S	2005 F/W	2006 S/S	2006 F/W
수집자료 (친환경 디자인특성)	17점 (5점)	17점 (0점)	18점 (6점)	16점 (10점)	17점 (0점)	16점 (5점)	20점 (5점)	18점 (3점)
연도	2007 S/S	2007 F/W	2008 S/S	2008 F/W	2009 S/S	2009 F/W	2010 S/S	2010 F/W
수집자료 (친환경 디자인특성)	18점 (7점)	18점 (10점)	13점 (8점)	13점 (7점)	13점 (9점)	12점 (0점)	14점 (5점)	18점 (8점)



〈그림 9〉 연도별 Issey Miyake의 패션에 나타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

1. 자연성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으로서, Miyake의 패션에서 나타난 자연성은 무엇보다도 면, 마, 모, 펠트 등 천연소재를 즐겨 사용한 점이였다. Miyake는 천연소재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보다는 자연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거칠고 구겨진 듯한 자연적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현대적 기술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새롭고 흥미있는 자연소재를 개발하였다. 자연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는 1998년 S/S 시즌과 1998년 F/W 시즌이었다. 1998년 S/S 시즌에는 천연소재의 구김이나 나무, 대지의 표면 등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질감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1998년 F/W 시즌에는 면, 마, 모 펠트 등 천연소재에 프레스된 열에 의해 옷의 주름이나 불규칙적인 메탈 레이어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전통과 현대 기술의 만남을 통해 현대사회가 직면한 환경이라는 문제를 표현하고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구김이 있는 면 소재를 이용한 작품이 많이 보였으며, 1999년 F/W 시즌과 2006년 S/S 시즌에는 일본의 전통염색기법을 이용하였고, 2001년 F/W

시즌에는 모, 펠트의 천연소재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Miyake의 컬렉션을 친환경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천연소재의 선호와 테크놀로지에 의한 자연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연성은 다른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들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그림 10〉³⁴⁾은 니트 조직을 개발함으로써 자연의 거친 질감을 표현한 1988년 작품이며, 〈그림 11〉³⁵⁾은 1998년 F/W 시즌의 Starburst 컬렉션이다. 이는 전통과 현대기술의 만남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가 직면한 환경이라는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옷은 부드러운 면, 플란넬, 모, 펠트 등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옷에 금속종이의 얇은 막이 열로 가열되고 프레스 되어진 것으로, 금속종이들이 옷의 주름 라인을 따라 찢겨져 천연소재 사이로 금속레이어가 드러나게 한 작품이었다. 이로 인해 옷의 형태는 골드, 실버 혹은 브론즈 빛에 의한 십자 형태와 무작위적인 패턴을 드러내었다. 이렇듯 Miyake는 천연소재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함으로써 환경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림 10〉 1988
- *Issey Miyake*, p. 77.



〈그림 11〉 1998 F/W
- <http://www.firstview.com>

2. 단순성

단순성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Miyake의 작품 중에서 가장 꾸준히 나타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었다. Miyake의 패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단순성은 의복의 제작과정에서 소요되는 재단, 봉제 등의 단계를 최소한 절제하고 한 조각의 천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인체와 입체적으로 조화되는 작품들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단순성은 1999년 S/S 시즌, 2000년 S/S 시즌, 2002년 F/W 시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는 a piece of cloth 개념의 시도로서 닥트 등 서양의 입체적 재단 기법이나 봉제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2차원의 천을 접기, 묶기, 집기, 두르기 등의 방법을 통해 인체에 입체적으로 연출하였다. 이 외에도 1997년 S/S, 1998년 F/W, 2007년 S/S, 2008년 F/W, 2009년 S/S 시즌에는 필요 이상의 재료나 의복 제작과정의

노동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체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연출함으로써, 동양적인 직선 재단과 여밈 방법이 지극히 친환경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Miyake는 재단과 봉제에 들어가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단순성의 특성을 미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1997년 F/W 시즌, 2005년 F/W 시즌, 2010년 S/S 시즌에는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형태 자체의 단순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12〉³⁶⁾는 1990년의 작품으로, 두 장의 평면의 옷감이 인체에 입체적으로써 3차원의 입체감을 형성하는 극도로 절제된 디자인의 사례이다. 때때로 그는 장식이 없는 디자인에 색채로 장식성을 부여함으로써 간결미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즉 Miyake는 현대의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의 하나로서 형태와 색상의 단순성을 이용하여 패션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였다. 〈그림 13〉³⁷⁾은 닥트를 사



〈그림 12〉 1990
- *Issey Miyake*, p. 92.



〈그림 13〉 1999 S/S
- <http://www.firstview.com>



〈그림 14〉 2009 S/S
- <http://www.firstview.com>

용하지 않고, 천을 인체에 둘러 허리와 힙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리면서 실루엣을 연출한 스커트이다. <그림 14>³⁸⁾도 다트를 사용하지 않은 채, 직선 재단을 이용하여 천을 인체에 그대로 입힌 후, 인체의 곡선을 따라 천을 집어 고정시키면서 실루엣을 표현한 작품이다.

3. 지속성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Miyake의 작품 중에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 중 하나인 지속성이란, 유행의 흐름과 연령, 그리고 체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주름의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Issey Miyake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 주름의상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서양의 티셔츠와 청바지처럼 누구에게나 입혀질 수 있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추구한 결과였다. 특히 Miyake의 주름의상은 인체에 입혀졌을 때, 가는 폭의 주름이 펼쳐지면서 왜소하거나 볼륨이 있거나 체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착용이 가능하며, 탄력성이 있는 주름이 체형과 조화되어 모두에게 어울려진다. 게다가 가볍고 세탁과 보관이 용이하며 질리지 않는 Miyake의 주름의상은 유행의 흐름을 타지 않으므로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입혀질 수 있다. 이러한 지속성은 1993년 S/S 시즌의 Pleats Please 라인을 시작으로 1997년 F/W 시즌과 1998년 S/S 시즌에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주름의상은 2000년 이후에도 매년 컬렉션을 통해 캐주얼한 스포츠웨어부터 우아한 패션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발표되었다. 특히 2001년 S/S, 2007년 F/W, 2008년 S/S, 2008년 F/W 시즌에 주름의상이 발표됨으로써 Miyake의 주름의상의 지속성을 유지하였다. <그림 15>³⁹⁾는 1994년 S/S 시즌에 발표된 Pleats Please 라인의 초기 작품으로, 각 아이템들이 서로 레이어드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16>⁴⁰⁾은 2007년 F/W 시즌에 발표된 작품으로, 주름의상 초기의 작품을 캐주얼한 스타일로 발전시킨 디자인이다. <그림 17>⁴¹⁾은 2008년 S/S 시즌에 발표된 주름의상으로, 마주보는 형태로 꺾여 있는 주름의 방향이 흥미롭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Miyake가 많은 실험연구를 통해 다양한 주름의상을 꾸준히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령과 체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착용가능하고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디자인은 유행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꾸준히 이용되는 지속성과 연관될 수 있겠다. 한편 1999년 S/S 시즌과 1999년 F/W 시즌에서 발표된 A-POC에서는 재활용한 실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으로의 순환성을 강조한 지속성의 또 다른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4. 다변성

Issey Miyake는 그의 패션에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으로서의 다변성을 과학과 기술, 그리고 패션을 접목함으로써 가장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다변성은 그의 패션에서 단순성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었다. Issey



<그림 15> 1994 S/S
- Issey Miyake, p. 98.



<그림 16> 2007 F/W
- <http://www.firstview.com>



<그림 17> 2008 S/S
- <http://www.firstview.com>



〈그림 18〉 2000 S/S
- *A-Poc Making*, p. 63.



〈그림 19〉 2004 F/W
- <http://www.firstview.com>



〈그림 20〉 2007 S/S
- <http://www.firstview.com>



〈그림 21〉 2008 F/W
- <http://www.firstview.com>

Miyake의 패션에서 다변성은 1999년과 2004년, 2007년, 2008년에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1999년 S/S 시즌과 1999년 F/W 시즌에 나타난 다변성은 A-POC 시리즈였다. 이 당시 Issey Miyake가 강조해오던 a piece of cloth 개념의 단순성은 1999년에 A-POC Making이라는 획기적인 재단법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재료와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라는 단순성과 함께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디자인이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는 다변성을 나타내었다. A-POC에서 나타난 Miyake의 이러한 의도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의 한 방안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 〈그림 18〉⁴²⁾은 2000년 S/S 시즌의 A-POC 사례이다. A-POC의 시도 이후로 Miyake는 2004년 S/S 시즌과 2008년 S/S 시즌에는 드로우 스트링(draw string)을 이용하여 실루엣과 디자인이 변형되는 다변성을 추구하였고, 2004년 F/W 시즌, 2007년 S/S 시즌,

2008년 F/W 시즌에는 묶기 기법을 이용한 다변성을 시도하였다. 이 외에도 2007년 S/S 시즌에는 단추와 지퍼를 이용한 다변성을 시도하였으며, 2010년 F/W 시즌에는 겹쳐 입는 레어드 스타일링을 활용한 다변성을 발표하였다. 〈그림 19〉⁴³⁾와 〈그림 20〉⁴⁴⁾은 옷에 달린 끈을 이용하여 스타일을 변형할 수 있게 디자인함으로써 여러 별의 효과를 추구하도록 의도한 작품이다. 〈그림 21〉⁴⁵⁾은 2008년 S/S 시즌 작품으로, 드로우 스트링을 이용하여 실루엣 변형과 옷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Miyake의 작품 가운데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 발견된 작품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Issey Miyake의 패션에 나타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

친환경적 디자인특성	특징 및 사례	
자연성	천연소재 선호	테크놀로지에 의한 자연소재 개발
	 <p>1993S/S 1997F/W 1998S/S 1999F/W 2006S/S</p>	 <p>1980년대 1998F/W</p>
단순성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최소화	
	 <p>1990 1997S/S 1999S/S 2000S/S 2009S/S 2010S/S</p>	
지속성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고, 연령과 체형에 관계없이 착용가능한 보편성 추구	
	 <p>1994S/S 2001F/W 2007F/W 2008S/S 2008F/W</p>	
다변성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기능 충족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소효과 기대
	 <p>1980년대 1999F/W 2004F/W</p> <p>2004S/S 2007S/S 2008S/S 2009S/S</p>	 <p>1999S/S</p> <p>2007F/W</p>

IV. 결론

Issey Miyake는 의복의 실용성과 보편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해 온 패션디자이너로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해 왔다. 다시 말하면, Miyake는 자연과 기술, 전통과 기술, 예술과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진보적인 디자인을 지향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친환경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ssey Miyake의 패션을 친환경 디자인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자연성, 단순성, 지속성, 다변성이라는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Issey Miyake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Miyake의 패션에서 자연성은 무엇보다도 그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재 표현을 통해 그의 작품에 반영되었다. 특히 Miyake는 1980년대 작품들을 통해 일본 전통의 생사를 사용하여, 양감 있고 거칠고 불규칙하며 구겨놓은 듯한 풍부한 질감을 표현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면, 마, 실크와 같은 천연소재에 현대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자연소재개발에 힘을 기울여 의복 소재의 다양성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Miyake의 패션에 있어서 단순성이란 무엇보다도 의복의 제작과정을 최소화 하고자 한 그의 의도로부터 단순한 형태와 과장되지 않은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단순성이 발견되는 작품들은 일본의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형태로부터 응용되었다. Miyake는 서양의 재단과 봉제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장방형의 천 자체에 변형을 가하지 않은 직선적인 재단을 이용하였고, 다투라는 서양의 입체재단 방식을 거부하고 인체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천의 형태를 존중하여 끈을 이용하여 묶거나 천을 집어서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하였다. 그의 패션에서 자주 나타나는 두르기, 걸치기, 매기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의복을 자유롭게 레이어링하는 착장방법은, 직선 재단이 3차원의 인체구조를 초월하여 유동적인 선으로 재창조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한편 Miyake가 그의 패션에서 추구하고자 한 것은 시대적 감각의 호

름을 타지 않는 클래식 스타일이거나 단순한 실루엣으로서 유행에 민감히 반응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실용성과 보편성이었다. 그의 지속성 추구는 주름의상 시리즈로 귀결되어 나타났으며, 이것은 특정 나이나 체형에 관계 없이 현재의 미적 감각을 내포한 스타일로써,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아 유행에 구애받지 않음으로써 의복수명의 연장효과를 갖고자 함이었다. 연령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즐겨 입을 것과 같은 의복을 만들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주름의상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의복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목표를 실현시킨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변성은 친환경 디자인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 21세기 이후의 현대패션에 있어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며 증가하였다. Miyake의 패션에 나타난 다변성은 작은 가방 안에 들어갈 만한 판초 형태의 옷이 민소매 원피스로 변화되거나, 한 가지 복식 내에서 분리와 조합이 일어나는 탈착개념의 효과로 나타났다. 다변성은 다른 친환경적 디자인의 특성들에 비해 2000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이었다. 대량생산을 위한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착용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원절약과 폐기물 감소의 효과를 갖는 다변성은 Miyake의 중요한 패션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980년대와 2000년대의 Miyake의 작품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1999년 S/S 시즌에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999년 F/W 시즌, 2004년 F/W 시즌, 그리고 2000년 S/S 시즌의 순으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1999년의 S/S 시즌과 1999년 F/W 시즌에 발표된 A-POC에서는 재단과 봉제 과정을 생략한 단순성과 재활용 실을 사용함으로써 지속성이, 그리고 착용자가 원하는 대로 형태의 연출이 가능한 다변성의 특성이 모두 보여졌다. 2004년 F/W 시즌에는 디테일을 활용한 스타일 변형이 가능하여 한 벌로 여러 벌의 효과를 추구하는 다변성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2000년 S/S 시즌에는 장방형의 천을 다투 등 서양의 입체 재단방식을 거치지 않고 인체에 그대로 입혀 입체감을 연출한 단순성의 특

성이 나타났다. 아울러 Miyake의 이러한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대한 관심이 그가 은퇴한 2000년 이후에도 그의 후계 디자이너들을 통해 더욱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창조되고 발전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Issey Miyake의 초기 작품들의 수집을 남아 있는 작품집에만 의존하다 보니, 컬렉션 사이트로부터 수집한 1996년 이후의 작품들에 비해 작품수가 현저히 적었다.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연도별로 수집된 자료 수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양적으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Miyake의 인간과 환경을 존중하는 친환경적 디자인 의도가 그의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분석한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는 Issey Miyake 외에도 친환경 디자인의 관점에서 현대패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미래 패션이 나아갈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조은혜 (2008, 9, 29), "친환경 섬유 시대 막 올랐다", 어패럴뉴스, pp. 34-35, 자료검색일 2011. 8. 26, http://www.appnews.co.kr/PDF/2011_PDF_oneweek_list.php?date=20080929
- 2) "Sustainable Clothing II". (2007, 4, 10),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8, 5, 30, <http://www.samsungdesign.net>
- 3) 박명희 (1990),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pp. 12-19.
- 4) 김미성, 배수정 (2003),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철학을 통해 나타난 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p. 167-171.
- 5) 윤지영 (2009), Issey Miyake 작품의 상징성과 예술의 지에 대한 해석, *한국의류학회지*, 33(1), pp. 131-135.
- 6) 조정미, 허은주 (2009),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인 발상과 상업화를 위한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1), pp. 82-89.
- 7) 하승연 (2009), 친환경패션에 나타난 가치와 디자인 요소,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
- 8) 김희연 (2006), 패션의 창조적 원천, 자연, *룩 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김영인의 편, 서울: 교문사, p. 10.
- 9) 강현주 (2008), 적을수록 많다, *열 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 이정혜 외, 서울: 디자인하우스, p. 59.
- 10) Fuad-Luke, A. (2009), *Eco-design handbook*, London: Thames & Hudson, p. 126.
- 11) McDonough, W., & Braungart, M. (2002), *Cradle to cradle*, 김은령 역 (2002), *요람에서 요람으로*, 서울: 에코리브르, pp. 17-18.
- 12) MacKenzie, D. (1997), *Green Design: Design for the Environment*, 이경아 역 (1996), *(환경을 위한) 그린 디자인*, 서울: 국제, p. 20.
- 13) 이병문 (2006), *북유럽 디자인경영*,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p. 79.
- 14) Fuad-Luke, A., *op. cit.*, p. 40.
- 15) McDonough, W., & Braungart, M., *op. cit.*, p. 143.
- 16) 이연희, 이현아, 박재욱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1), p. 23.
- 17) Fuad-Luke, A., *op. cit.*, p. 29.
- 18) *Ibid.*, p. 21.
- 19) 나영원 (2003),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3.
- 20) Fuad-Luke, A., *op. cit.*, p. 153.
- 21) *Ibid.*, p. 190.
- 22) Polan, B., & Tredre, R. (2009), *The great fashion designer*, New York: Berg Publications, pp. 151-153.
- 23) Jones, T., & Rushton, S. (2006), *Fashion now 2: I-D selects 160 of its favorite fashion designers from around the world*, London: Taschen, p. 272.
- 24) Jones, T., & Rushton, S. (2005), *Fashion now: I-D selects the world's 150 most important designers*, London: Taschen, p. 238.
- 25) 한경미 (2004), 일본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에서 나타난 zen-style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3.
- 26) Polan, B., & Tredre, R., *op. cit.*, p. 153.
- 27) Golbin, P. (1999), *Fashion designer*, New York: Watson-Guption Publications, pp. 122-123.
- 28) 김미성, 배수정, *op. cit.*, p. 168.
- 29) Golbin, P., *op. cit.*, p. 122.
- 30) Holborn, M. (1995), *Issey Miyake*, Los-Angeles: Taschen, p. 42.
- 31) 한경미, *op. cit.*, pp. 31-32.
- 32) Miyake, I., & Fujiwara, D. (2001), *A-Poc making*, Kries, M., & Von Vequesack, A. eds, Weil and Rhein: Vitra Design Museum, pp. 65-69.
- 33) 조정미, 허은주, *op. cit.*, p. 87.
- 34) Miyake, I., *op. cit.*, p. 77.
- 35) "F/W 1998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0, September 10, from <http://firstview.com>
- 36) Miyake, I., *op. cit.*, p. 92.
- 37) "S/S 1999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0, September 10, from <http://firstview.com>
- 38) "S/S 2009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

- Online. retrieved 2010, September 10, from <http://firstview.com>
- 39) Miyake, I., *op. cit.*, p. 98.
 - 40) "F/W 2007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0, September 10, from <http://firstview.com>
 - 41) "S/S 2008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0, September 10, from <http://firstview.com>
 - 42) Miyake, I. & Fujiwara, D., *op. cit.*, p. 63.
 - 43) "F/W 2004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0, September 10, from <http://firstview.com>
 - 44) "S/S 2007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0, September 10, from <http://firstview.com>
 - 45) "F/W 2008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0, September 10, from <http://firstview.com>